

엔저 장기화에 日 주식 관심 ↑... 금투업계, 상품 출시 '젠걸음'

국내 투자자들 3.9억달러 순매수
전년동기비 16배가량 증가한 수치
하나증권, 엔화 투자 '엔캐리랩'
한국투자증권, ETN 6종 신규상장

엔저 현상 장기화로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증가하자, 금융투자업계는 일본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등 투자자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전날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주식 3억9000만 달러 가량을 순매수했다. 이는 전년동기(2325만 달러) 대비 1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난달 순매수 금액은 1억5388만 달러로 2021년 3월(1억7537만 달러)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1억427만 달러를 사들이며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상장된 일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도 증가하고 있다. 엔화 강세에 베풀하는 TIGER일본엔선물 ETF의 순자산은 전날 기준 1081억 원으로 올 초 180억 원대 수준이었던 것이 비하면 6배가량 증가했다. TIGER일본TOPIX(합성H)는 614억 원으로 연초(102억 원) 대비 512억 원 증가했으며, KODEX 일본TOPIX100도 463억 원으로 연초(93억 원)에 비해 370억 원 늘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일본 증시가



엔화 하락세가 이어진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엔·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지수는 연초 대비 27%가량 올랐다. 특히 엔저 현상이 장기화된 것도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 최근 원·엔 환율이 900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6월 8년여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하락하는 등 올해 들어 엔화 가치는 바닥에 머물러 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이같은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분위기에 대응해 일본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29일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 국제 상장지수펀드(ETF)를 엔화로 투자할 수 있는 '엔캐리랩'을 신규 출시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엔화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ETN) 6종을 지난 10일 신규 상장했다.

자산운용사들도 일본 관련 ETF를 출시하고 있다. 이날 한화자산운용은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선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일본 로봇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TIGER글로벌AI&로보틱스INDXXETF를 신규 상장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본 관련된 금융 상품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경제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하반기 일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재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일본 증시는 가격조정이 아닌 속도 조정 단계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 실적 저점 통과 및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연 후반기에 걸쳐 상승 폭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예탁원, 상장주식 49개사 의무보유 해제

내달 중 2억7482만주 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49개사 2억7482만주가 내달 중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774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2개사

1억973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현대무백스(3748만주), 실리콘투(2706만주), 에스엠백셀(2410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싸이버원(56.16%), 실리콘투(44.85%), 프롬바이오(42.46%) 등이다. /원관희 기자 wkh@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 28일 현지 사립 병원인 PT Charlie Hospital Semarang의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상장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신한證, 인니 현지병원 RSCH 상장 추진

RSCH 상장 통해 55억 자금 조달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은 지난 28일 현지 사립 병원인 PT Charlie Hospital Semarang(RSCH)의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상장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RSCH는 주당 공모가 115루피아로 발행해 609억 루피아(약 55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인 35%까지 상승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13.9% 상승한 131루피아로 마감했다.

이번 기업공개(IPO)로 조달된 자금은 2024년 3월에 완공 예정인 Charlie Hospital Demak의 건설 자금 및 신규 의료 장비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

해 줄기세포 치료 등 한국 병원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훈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번 RSCH IPO를 포함하여 올해 총 8건의 IPO를 주관해 성공리에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상장을 완료했다"며 "다수의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IPO 상장을 추가로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증권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해졌다"며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내재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다양한 금융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인도네시아 현지 IB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가을 분양시장 개막... 이달 3만 가구 공급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 1만1053가구
지난달 물량 대비 2배 가량 늘어나
경기 4168가구 8곳으로 가장 많아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 닦을 올린다.

3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중 전국 35곳에서 3만68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663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1만1053가구(53.5%)며, 지방은 9610가구(46.5%)다. 이는 지난달 물량(1만1367가구)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다만 서울 등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슈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가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분양 예정 물량이 실제 분양 실적보다는 줄어 들 수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168가구(8곳, 20.2%)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712가구(10곳, 18%), 광주 3280가구(3곳, 15.9%)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가는 가운데 월별로는 올해 최대 물량이 분양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를 감안하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알짜 단지들이 많이 분양되는 달"이라며 "특히 서울에서는 10곳이나 분양되고,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투시도.

물량도 많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로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20~139㎡, 4321가구 중 164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호반건설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호반써밋 개봉'(개봉5구역 재건축) 49~114㎡, 317가구 중 19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도보권에 있는 구로구 첫 호반써밋 아파트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DL이앤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동탄2신도시A94블록) 1227가구를 후분양아파트로 내놓는다. 이 단지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아

파트로 전용면적 74~84㎡ 907가구는 공공, 전용면적 95~115㎡ 320가구는 민간 분양으로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부산 남구에 자리한 '더비치 푸르지오 써밋'(대연4구역 재건축) 59~114㎡, 1384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대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비수도권에 최초로 적용된 단지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북 청주시에 지어지는 '더샵 오창프레스티지' 99~127㎡, 644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예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기업이 모여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속해 직주근접이 뛰어나다.

/이규성 기자 peace@

임플란트·레진 등 치과보험 사기 '주의'

설계사와 치과병원 공모해 사기

설계사와 치과병원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치아보험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환자를 가담시키는 일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급증했고,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

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치과보험 사기 사례를 보면 특정 설계사들이 SNS, 전화 등으로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해 3~4개의 치아보험에 가입시킨다. 공모 병원에서 충치 상태를 진료기록 없이 사전 진단하거나 건강검진시 시행한 치아점검 결과를 활용해 보험사로부터 모집 수수료를 수취한다.

보험금 감액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모한 치과병원에 환자가 내원해 치료를 받고, 레진 등 충전치료 개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보험사에 청구해 받은 보험금 일부는 설계사가 병원 치료비 후납과 수수료 명목으로 편취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